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크래프트 주류 제조자들에게 크래프트 주류 제조 통합 라이선스 적극 활용 권장

최초 크래프트 주류 제조 통합 라이선스 발급 시작 후 1년이 지난 현재, 총 33명이 통합 라이선스 취득

여러 크래프트 주류 제조 라이선스를 하나로 통합, 수수료를 줄이고 소규모 사업체에게 번거로운 서류 절차 감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크래프트 주류 제조자들에게 크래프트 주류 제조 통합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2016년 9월 7일 도입된 크래프트 주류 제조 통합 라이선스는 기존 뉴욕의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을 현대화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법안 내용 중 일부로서, 법안 내용은 주내 술집, 식당, 테이스팅룸의 일요일 영업 개점시간을 정오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통합 라이선스는 기존 산재해 있는 크래프트 주류 제조 라이선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수료를 줄이고 소규모 사업체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서류 절차를 줄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총 33명의 크래프트 주류 제조자들이 통합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이제 본 라이선스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크래프트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크래프트 주류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춘 본 라이선스는 요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체가 주류 생산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뉴욕은 이러한 업체들이 성장하고 주내 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와인, 맥주, 증류주 회의(2012 Wine, Beer and Spirits Summit)에서 Cuomo 주지사는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주류 제조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정책을 폐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소규모 와인 제조업체가 위스키를 양조하려면 따로 분리된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이러한 정책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장은 각각의 라이선스에 대한 서류를 계속 제출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본 통합 라이선스는 2건 이상의 주류 제조 라이선스를 통합해서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여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로 400달러를 한 번만 지불하도록 해서 비용을 절약하게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추가적인 라이선스마다 1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 통합 면허는 다음에 열거되는 라이선스 중 2건 이상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농장 양조장, 소규모 양조장, 농장 사과주 양조장, 농장 와인 양조장, 소규모 증류주 양조장, 소규모 정류장, 농장 증류주 양조장.

최초로 발급된 크래프트 주류 제조 통합 라이선스는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입법 이후 통합 라이선스 취득 건은 총 33건입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이 매 달 2 건 씩 본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여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트 주류 제조 업체는 무려 104 곳이나 됩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는 크래프트 주류 제조 업체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들은 새로 도입된 통합 라이선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라이선스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각 사업체가 양조 기술에 더욱 전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현재 700곳 이상의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사과주 양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1년 195곳이었던 뉴욕주의 와인 양조장 수는 현재 348곳으로 75%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농가 양조장의 수 또한 2011년 10곳에서 1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맥주 양조 농장 라이선스와 2014년 사과주 양조 농장 라이선스를 비롯하여 2012년 이래로 2개의 라이선스가 신설되어, 맥주 양조장 202곳과 사과주 양조장 42곳이 설립되었습니다.

주류 제조 라이선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